

미술품 경매 현실과 건전한 방향 모색

백민현

사상 최고가로 판매된 미술품을 아는가? 에드바르 뭉크(노르웨이 태생, 1863-1944)의 “절규”라는 작품이다. 2012년 5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최고가인 1,355억 원에 낙찰되었다. 사이즈는 59*79센티의 파스텔화이며, 12명이 경합하여 7분 만에 매매 완료되었다. 피카소의 “녹색잎과 상반신”은 2010년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200억 원에 낙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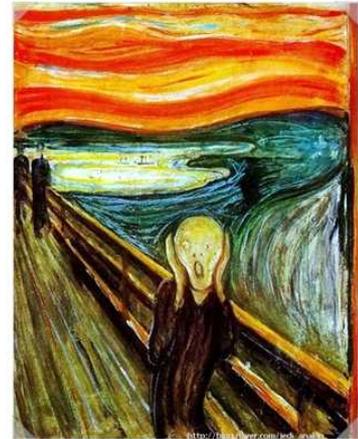
1. 미술품 경매의 정의

경매는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공공 판매방식을 말한다. 미술품 경매는 경매회사가 취급하는 다양한 경매 물품 중 미술품을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품은 장르상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을 포함하여 시대는 과거부터 오늘까지 모든 시대의 작품을 포함한다.

미술품이 다른 경매 물품과 차이점은 미적 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술품의 미적 가치와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불확정적이라는데 있다. 미술품 경매제도가 미술시장에서 갖는 기능은 우선 공개적인 가격형성 기능이다. 경매는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판매방식이라는 점에서 투명성을 가진다. 경매 진행 과정과 경매결과가 공개되며 가격은 다수의 구매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진다. 이런 관점에서 경매제도는 미술시장의 양성화와 미술품 가격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미술작품의 유통시장은 보통 3단계로 나누어진다. 작가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행하는 1차 시장, 시설화랑이나 중개인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2차 시장, 그리고 국제적 경매가 이루어지는 3차 시장의 구분이 그것이다. 1,2차 시장은 미술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수집가는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3차 시장으로서의 미술품 경매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미술품의 미적가치와 가격간의 상관관계를 예측하는데 있어 비교적 안정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미술품 경매를 통한 판매 기록은 미술품 가격의 불확정성을 보다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경매회사는 1,2차 시장에서의 모든 정보와 함께 자체 내의 전문 감정 부서와 전 세계적인 전문가 네트워크



크를 통해 미술품의 미적가치를 객관화 할 수 있는 인증장치 곧 미술품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감정은 미적 가치를 가격화 하는 것을 말하고 경매회사가 제시한 가격이 합리성을 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경매회사의 감정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2. 경매 시장의 역사

소더비(Sotheby)와 크리스티(Christies)는 영국에서 시작된 경매회사이다. 소더비(Sotheby)는 영국 런던의 서적 판매상인 사무엘 베이커가 1744년 개인소장 도서들을 효과적으로 팔기위한 방법으로 행했던 경매 기술이 소더비 역사의 기원이 되었다. 1778년 그의 사망으로 조카인 존 소더비에게 회사가 넘어가면서 '소더비'라는 현재 이름을 열게 되어 제2차대전 때 주춤했던 소더비는 1957년 와인버거 컬렉션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 네덜란드 은행업자인 와인버거가 2차대전 때 뉴욕에 건너가 물품 수집을 하고 죽자 당시 소더비 사장이었던 피터 윌슨이 유산 관리자를 설득하여 경매에 붙이는데 성공하였다.

크리스티(Christies)는 1766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크리스티가 런던에서 첫 경매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적류만 다루던 소더비와는 달리 미술품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을 경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1859년 윌리엄 맨슨과 토마스 우즈가 합류해 '크리스티 맨슨 앤 우즈'라는 합작 회사로 재탄생했으며 1973년 런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1998년에는 프랑스의 대부호인 삐노가 크리스티의 대주주가 되면서 회사가 진일보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 오랫동안 런던에 안주해 있던 크리스티는 이를 계기로 뉴욕을 비롯해 전 세계로 진출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다. 현재 뉴욕과 런던을 거점으로 세계 43개국에 129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18개의 경매장에서 연간 800회 이상의 경매를 개최한다.(직원이 약 1,300명)

경매수수료는 구입자에게 20~25%를 받고 위탁자에게 4~10%를 받는다. 값이 저렴하면 수수료는 올라가고 고가이면 수수료는 내려간다. 경매실적 기준으로 볼 때 2005년과 2006년 세계 제1위의 경매회사는 크리스티(Christie's), 2위는 소더비(Sotheby's)이다. 국제 미술시장 분석기관인 아트프라이스닷컴(artprice.com) 조사에 따르면 2006년 전 세계 경매 낙찰총액의 43%를 크리스티가, 33%를 소더비가 차지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실적이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막상막하이기 때문에 그냥 양대 경매회사라 불린다.

고가에 낙찰된 유명 미술작품 중엔 이 두 회사에서 낙찰된 것이 대부분이다. 두 회사는 뉴욕, 런던, 홍콩, LA, 파리, 제네바 등에 경매장을 두고 있고, 100개 안팎의 나라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특히 매년 봄과 가을에 하는 '인상주의와 근대미술 경매'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및 현대미술 경매'는 두 회사를 먹여 살리는 가장 중요한 메이저 경매다. 이 두 경매 외에도 미국 미술, 영국 미술, 아시아 미술, 보석 등으로 주제를 달리 해 연중 계속해서 경매를 한다. 핫 시즌에는 1주일 내내 거의 매일 종일 경매를 할 정도로 분주하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를 잇는 세 번째 큰 경매회사는 필립스(Phillips de Pury & Company)로 현대미술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에 미술품 경매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9년 6월28일 신세계미술관에서 작고 작가 36인의 작품을 모아서 제1회 근대 미술품 경매를 열었다. 68점 중 37점이 낙찰되어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1980년, 1981년 세 차례 열리고 중단되었다. 원인은 낙찰율의 저조 (3회 시는 17%)와 작

품의 누적이었다. 이후에도 송원화랑, 하나로 미술관 등이 부정기적으로, 또는 시험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불경기와 구매자의 참석을 저조로 문을 닫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대 경매 회사는 서울옥션과 K옥션이다. 서울옥션은 가나아트센터가 1999년에 만들었고, K옥션은 갤러리 현대, 학고재 화랑, 하나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해 2005년에 출발했다. 서울옥션과 K옥션은 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미술품을 다룬다. 이외에도 유명 방송사가 주최하는 m옥션 등 많은 경매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다.

3. 미술품 경매 제도의 장단점

먼저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양성화 된다. 거래량이 모두 100% 노출된다. 삼성 법무팀 김모씨가 검찰에 고발한 홍나희 여사 소유의 “행복한 눈물” 혹은 그들은 “노동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작품도 양성화되었다.



2) 호당 가격제가 지양되어, 작품의 절대 가치가 부여된다. 한 작가 작품도 가격차가 많이 생기는데, 제작 연도와 작품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3) 위작 판매를 줄일 수 있다. 공개 전시 이후에 경매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김종학씨의 위작 공장이 대구에 있다는 소문도 있다. 그리고 전혁림씨의 경우 위작 리스트가 발표되고 온, 오프라인 매매 80%가 위작이라고 발표되기도 했다. 4)판매 위탁인들도 공개적으로 판매되기에 비교적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5)작품거래의 빈도가 많아 회전이 빠르다. 수급조절이 쉬워진다. 6)소장인의 생각에 따라 쉽게 유통 가능하다.

경매제도의 부정적인 면도 많다.

1) 의뢰인(고객, 작가)과 낙찰인(컬렉터, 畫商) 사이에 담합에 의해 인위적인 가격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

- 2) 정해진 기간에만 전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는 판매 구매가 불가능하다.
- 3) 이미 시장성(市場性)이 확보된 작가층만 경매에 출품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로 고가(高價)의 작품이 주류(主流)가 된다.
- 4) 경매 당일 분위기에 따라 과열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아 변칙적일 수 있어, 시가(時價)보다 훨씬 고가(高價)나 저가(低價)에 낙찰될 수 있다.
- 5) 생존 작가 작품들이 자연히 쉽게 판매되는 쪽을 선택하게 됨으로 작품 경향이 상업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 6) 낙찰자의 신분이 노출된다.
- 7) 위탁 작품이 매매되지 않을 수 있다.
- 8) 위탁에서 대금 지급까지 약 2개월 이상이 걸린다.
- 9) 높은 위탁 수수료(약 30% 이상)가 부담이 될 수 있다.
- 9) 현재 한국 경매시장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진출이 비교적 쉬워져서 활발한 경매가 이루어지다가 불과 1~2년 뒤에 수요가 떨어지면 가차 없이 버림받기도 한다.
- 10) 경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기에 유망한 젊은 작가들의 퇴출무대가 되기도 한다. 이 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젊은 작가들이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없다.

4. 한국형 경매제도 개선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한국 미술시장은 아직도 아시아 지역에서 머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경매시장은 짧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있기에 참여하는 작가 층이 매우 얇고 빈곤하다. 경매에 올라오는 작가 중, 작고 작가와 현역 작가 모두 합쳐서 50 여 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재 커가는 젊은 작가들도 많이 참여 시키고 있다. 젊은 작가들을 제대로 큰 재목으로 키워 세계 미술시장까지 뻗어 나가야 함에도 예술가의 삶이 바로 현실과 직결되는 고단한 삶이란 핑계로 현실에 안주하여 이른바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 깊이 있는 작품 활동이 어려워지며 국제적인 스타 작가가 나오질 않고 있다. 이상의 문제들을 고려한 결과 다음과 같은 미술품 경매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1) 경매 회사에서는 작고 작가 위주(作故 作家 爲主)로 시장을 이끌어 가야한다. 특히 한국 근대 미술작가들 중에서 많은 작가들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역사의 뒷안길에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인 바, 힘은 들겠지만 옥션 관계자들이 미술사학회와 제휴하여 잊혀져간 선배 작가들을 재 발굴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2) 미술계가 발전하려면 작가, 평론가, 화랑, 컬렉터, 이 네 그룹이 손발을 맞추어 한 호흡으로 나아가야 미술계가 발전할 수 있다. 만약 누가 “컬렉터”라 한다면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작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당장의 이익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소장품을 경매 시장에 내어다 파는 이러한 안목과, 기다림의 시간을 잊은 채 서둘러 차를 바꾸어 타는 환경에선 절대 좋은 작가가 나올 수 없다. 예를 들어 홍콩 미술시장 내의 공공연한 얘기가, “한국작가의 작품은

참 좋지만, 작품가격이 조금 올라가다가 바로 떨어지기에 두려워서 구입을 못한다.”고 한다. 결국 우리작가 작품은, 한국의 컬렉터들이 꾸준히 그들을 지원해야만 외국인들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3) 미술품 애장가(컬렉터)는 우선 가격에 앞서 그림을 사랑하고 그 그림에서 삶의 기쁨과 위안을 받는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 특히 작품 안에 숨어있는 화가들의 세계관을 즐기는 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작품에는 어떤 식으로든 작가의 심리가 반영되며 많은 경우 작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욕망이나 충동이 개입되게 마련이라는 가정 아래 작품을 해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가의 무의식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작가의 개인사, 특히 어린 시절 '세계관'이라고 하는, 화가의 의식적으로 추구하여 머릿속에 구성한 관념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렇게 작가의 세계관을 매개로 하여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사회의 모습을 탐구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중진 화가 이왈종씨는 자연과 사람이 혼연일체가 된 한국적인 정서의 그림으로 인기를 얻어온 작가다. 그는 '생활 속에서'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작업을 하다가 1980년대 중반 '생활의 중도'로 주제를 전환한 뒤 1990년 추계예술대 교수직을 박차고 홀연히 제주로 내려가 '서귀포 생활의 중도'라는 연작을 계속 선보여 왔다. "중도는 원래 불교 용어인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곧 그는 범신론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원근법을 무시한 채 인간보다 큰 새가 등장하고 하늘에는 물고기가 날고 사람들은 나무 속에서 뛰어논다. 동양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때문이겠지만 이왈종씨의 작품은 현대적이다. 그의 예술관은 무엇일까. 화가는 "예술의 목표는 똑 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승화시키는 것"이라는 답을 제시했다.

운보 김기창씨의 작품에 드러나는 기독교 세계관은 그의 힘의 근원이었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좋은 작가가 되게 한 힘의 근원이었다. 그가 그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깊은 인격적 만남에 의한 은혜였다. 미술가에게 있어 작품의 작업과정은 삶의 체험적 과정, 다시 말해 전인격적 영역이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미술작품 속에는 그 시대의 세계관과 선입관이 담겨있다. 또한 화가 개개인별로 삶의 철학이 응축되어있는 것이 미술작품이다.

작가와 미술작품은 마치 영혼의 그림자와 같아서 그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신념으로 작업에 임하는가에 따라 좋은 작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술가에게 있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화가들이 살아간 그 시대의 선입관과 시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림을 보는 안목 보다는 그 시대의 철학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미의식의 가치와 판단은 그 당시의 시대상과 선입관을 읽어내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오의석 교수는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이라는 큰 구조 안에서 작품을 보고 해설하였다. 그는 기독교세계관이 작품 이해와 감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로 보건대 기독교인들은 미술에 관한 올바른 기준과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4) 기독교인들이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눈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목사이면서도 미술을 누구보다 사랑한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예술과 성경]이라는 책에서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기

준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시한 바가 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1) 기교의 우수성: 예술 작품의 한 측면으로서 기교의 우수성을 인정함으로써 어떤 예술가와 그의 세계관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위대한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다. 단지 삶에 대한 견해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한 예술가의 작품을 쓰레기로 여긴다면 그를 한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 그리스도인 부모들, 목사들은 기교의 우수성과 내용을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위대한 예술품들이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었다. 어느 예술가의 기교가 뛰어나다면 세계관이 비록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를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타당성: 예술가가 자신과 자신의 세계관에 정직한가 아니면 돈을 위해서나 인정받기 위하여 예술 활동을 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예술가가 후원자들의 돈을 보고 접근한다거나 화랑 또는 미술평론가 들을 염두에 두고 작품과 대접을 한다면 그의 활동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설교라는 예술형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자. 어떤 목사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설교하고 또 일부 목사들은 자기가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설교하고 아첨하거나 한다. 모두 복음에 비추어 볼 때 부정직한 것이 들어난다. 마찬가지로 예술가들도 뉴욕, 런던의 유명한 비평가들과 얼마나 쉽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행위들을 하는지 모른다.

3) 예술가의 세계관: 비록 어느 예술인이 기교의 우수성과 타당성에서 뛰어나서 우리가 인정을 하였다 해도 그의 세계관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작가의 세계관은 예술작품을 통하여 나타난다. 심지어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원칙하에 만들어진 작품들조차도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관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기독교 작품이라고 할 때는 그 세계관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 표현 수단: 위대한 작품들은 그 내용과 양식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아주 위대한 작품들은 세계관을 제시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카소의 “아비뇰의 여인들”을 보자. 이 그림은 바르셀로나의 한 매음굴에서 이름을 따 왔다. 피카소는 이 그림의 양식을 그 시대의 다른 그림들처럼 그렸으나 한 비평가의 말처럼 반추상적인 구도로 그림을 마무리하였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림의 왼편에서 형체들을 비교적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점점 르네상스 이전 스페인 풍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여인들을 아주 추상적인 형태와 여인을 괴물로 묘사하였다. 피카소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그림을 통하여 피카소는 부서진 현대인의 본성을 그린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술 작품이어야 한다. 상실과 절망으로 허덕이는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와 아름다움의 예술로 빚어져 가는 삶이어야 한다. 예술에 대한 모든 시각들을 수용하고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